



## 사각의 구도 속에 잡힌 민족의 영산

《쉽게 찾는 우리 산-지리산》 펴낸  
임소혁씨

그는 사진을 찍을 때 행운을 바라지 않는다. 가장 좋은 사진은 현장에서 버티면서 기다릴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다. 그래서 태풍이 휘몰아치는 곳은 날에도 텐트 기둥을 붙잡고 몇 시간을 싸우기도 했다.

“사진가는 환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자연의 풍요한 선과 면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서는 화가의 농밀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벌거벗은 사실성 뒤에 녹아 있는 작가의 주관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사진이 놓친 여백을 정갈한 글들이 메운다. “적막을 가르는 광활한 달빛 설야! 온 산을 밝혀 갈 때면, /한떨기 설화가 되어 지리산은 또다시 피어난다.” 겨울 산행시 <산그림자>의 마지막 연이다.

‘득음(得音)’이란 말이 있듯이 그는 ‘득영(得影)’의 경지에 이른 듯하다.

그는 앞으로 할 일이 많다. 현암사에서 지리산의 사계를 담은 40장의 엽서가 곧 나올 예정이다. 올 한가위 무렵에 ‘지리산 운해전’도 열 계획이다. 평생의 탐구 대상으로 삼은 지리산의 숨겨진 모습을 담기 위해 그는 새벽에 이슬을 털고 일어나 산봉우리 위에서 있을 것이다.

— 박천홍 기자



지리산은 산승이 은거하는 암자와 태고의 숨결을 머금은 계곡, 깊이를 알 수 없는 원시림이 운무에 싸여 쉬 제 자태를 드러내지 않는다.

카메라의 파인더 안에 지리산의 사계를 담아낸다면 지리산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쉽게 찾는 우리 산-지리산》(현암사)에 그 모든 것이 들어 있다. 노고단부터 천왕봉까지 가는 길에 만나는 봉우리·능선·계곡·야생화 등이 300여 컷의 사진에 담겨 있다. 10년째 지리산을 사진에 담은 산악 사진작가 임소혁씨(48)가 그 길잡이다.

그는 왕시루봉(1232m) 아래에 살고 있는 지리산 사람이다. 1년에 2~4개월 정도만 서울 집에 머물 뿐 나머지는 야영을 하거나 왕시루봉에서 다람쥐와 함께 산다.

“저는 지리산을 ‘울어미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민족의 육체적, 정신적 기원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운해만큼이나 넓은 품이 있고, 나무뿌리만큼이나 심오한 사상이 있고, 광풍만큼이나 사나운 삶의 처절함이 있습니다.”

그의 사진 속에는 사람, 절, 산장, 심지어 등산객들이 쌓아놓은 돌담마저도 찾아보기 힘들다. 철저한 인공의 배제다. 운해를 품고 있는 부드러운 봉우리, 비단 자락을 펼친 듯한 계곡, 바람에 출렁이는 역새발, 일출과 일몰, 구상나무, 팽이눈꽃, 산수유만이 산의 자태를 풀어내고 있다.

“저는 지리산 그 자체만을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인간의 때가 타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에서 침묵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한국의 아픈 역사 담은 '깊은' 소설

《중군위안부》 펴낸 노라 옥자 켈러씨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삶을 지켜봐야만 하는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는 ‘베카’가 그다. 아키코와 베카의 독백과 대화 형식을 취하는 이 소설은 두 여인의 내밀한 심리묘사로 이들이 겪는 깊은 슬픔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 소설이 지니는 또 하나 특정은 한국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원형적 이미지들이 이 소설의 주요한 상징이자 모티프로 등장한다는 것. 삼신할머니와 저승사자는 이 소설의 주요 모티프인 생명과 죽음의 상징이며, 무수한 원혼들의 한을 신고 흐르는 강물, 그들의 혼백이 깃든 흙 등 넘쳐나는 한국적 이미지들은 작가가 지닌 문화적 정체성을 확연케 한다.

“이 소설을 위해 한국무속과 민간신앙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야말로 가장 근원적이고도 풍성한 지식을 주신 분이죠.”

방송출연과 강연 등 빠듯한 방문 일정을 쫓고 켈러씨는 정신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에 참여하는 한편 판문점도 들렀다.

“다음 작품도 한국의 아픈 역사를 소재로 한 것이 될 겁니다.” — 박남정 기자

《중군위안부》(밀알)는 실존하는 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체험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 미국에서 먼저 출간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이 소설은, 미국의 평론가 모임인 ‘뱀부 리지 스테디 그룹’이 그 해의 신진작가 작품 가운데 문학성이 높은 작품에 수여하는 ‘푸쉬카트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 이 책의 한국어판 출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을 다녀간 작가 노라 옥자 켈러씨(32)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현재 하와이대학에서 미국문학과 작문을 강의하며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중이다.

유난히 김치를 잘 먹는 자신의 딸을 보며 켈러씨는 어머니로부터 자신에게로, 또 자신의 딸에게로 대물림되는 ‘피의 원형’ 같은 것을 느낀다. 그 때문일까. 켈러씨에게 이번 소설은 어쩌면 자신이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숙명적인 ‘업’으로 다가왔다.

“93년 여성단체에서 주관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한 중군위안부 할머니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은 내가 그분의 이야기를 써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12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14살에 위안소를 극적으로 탈출, 미국인 선교사의 아내가 되어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결코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김순호-아키코의 삶은 이 소설의 소재이자 기본 줄거리다. 그러나 작가는 단순히 아키코의 삶을 평면적으로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독자들은 이 소설에서 또 한명의 불행한 여자를 만난다. 혼혈인으로서의 소외와





## 고전 통해 읽은 서구문명의 두 원류

《두 얼굴의 유럽문명》 펴낸 강응천씨

근대 이전 유럽 문명의 전개를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각축으로 설명한 《두 얼굴의 유럽문명》(사계절)을 펴낸 강응천씨(35, 출판기획자)의 전공은 국사학이다.

“우리 것에 대한 관심으로 국사학을 선택했는데, 공부하는 동안 서양의 관념이 우리 학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국제문화’라는 출판기획집단에서 번역을 하며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다가 우리 것을 제대로 알려면 서구 문명의 뿌리를 탐색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평생 할 일을 찾았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이 그리스 신화. 94년부터 매달려 96년 펴낸 《문명 속으로 뛰어든 그리스신들》(전2권, 사계절)은 그리스 신화를 통한 서구 문명의 이해를 담고 있다.

“당연히 다음 순서는 서구 정신의 뼈대를 이룬 고전이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아이스킬로스·아우구스티누스·단테·셰르반테스·셰익스피어·라신 등에 문혀 살았습니다.”

지금·여기라는 관점에 충실하기 위해 필자 자신이 책 속에 뛰어들어 질문하고 해명을 듣는 형식을 취했지만, 고전의 본래 내용을 왜곡·변형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하지만 고전 속에 어느 장면이 부각되었는지를 살피면 명확한 관점이 드러난다. 생키에비치의 《쿠오바디스》는 비니키우스의 교회화정보다 바울로와 페트로니우스의 논쟁 장면이 초점이 맞춰졌다.

“삶의 고뇌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려면 개종하라는 바울로의 권유에 대해서

‘삶은 그 자체를 위해 있지, 결코 죽음을 위해 있지 않다’는 페트로니우스의 생각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정면충돌입니다.”

헬레니즘의 부흥을 의미하는 르네상스와 헤브라이즘의 재정비라 할 수 있는 종교개혁 시대에는 신곡/데카메론, 그리스도인의 자유/가르강튀아, 돈키호테/햄릿 등이 양립한다. 이같은 관점은 매슈 아놀드의 《교양과 무질서》에서 시사를 받았지만 작업을 해나가는 동안 이 잣대만으로 근대 이후를 설명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됐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유럽문명의 원류일 뿐 유럽문명 그 자체는 아닙니다. 라신의 《페드르》도 헬레니즘 고전을 모티프로 하지만 전혀 다른 시대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루소나 볼테르에 이르면 두 가지 정신은 문명을 이끄는 동력으로 완전히 힘을 잃게 되고, 프랑스혁명 이후의 유럽 근대문명은 설명할 길이 없어진다. 따라서 이 책은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기까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적 요소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다룬 셈이다. 이제 강응천씨는 근대 이후의 서구 정신을 추적하는 일을 시작했다.

— 이현주 기자



## 글과 그림으로 어우러진 평등부부의 생활

《반쪽이 부부의 작은 세상》 펴낸 변재란·최정현씨

영화평론가 변재란씨(36)와 만화가 최정현씨(37) 부부가, 반쪽과 또다른 반쪽이 아웅다웅 사는 이야기 《반쪽이 부부의 작은 세상》(한겨레신문사)을 펴냈다.

“《한겨레 21》의 기사가 3개월만 연재하자고 조르는 바람에 외도로 시작한 일이었지요.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살림을 맡기고 바깥으로 나도는 여자라는 사람들의 오해도 불식시키고 싶었고, ‘나도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변재란씨가 글을 쓰고 최정현씨가 그림을 그린 이 책은 ‘평등부부상’을 받기도 한 이들의 가정생활, 육아문제, 자녀교육, 사회생활, 여성문제, 이웃과의 관계 등이 간결하고 명료한 문체와 재치있는 카툰으로 남편과의 신경전,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 여성차별적인 사회에 대한 분노 등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낸다.

두사람의 글과 그림은 서로 앞을 다투지 않는다. 글을 보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림에 맞추어 글을 쓰기도 하면서 호흡을 맞추어 왔다. 부부싸움을 한 뒤에도 원고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화해하기도 했다. 서로 상황을 접하고 이해하는 부부 사이라 글과 그림이 밀착되어 있고 잘 어우러져 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지요. 부부간, 형제간, 부모 자식간에도 조율이 필요한데 이것을 가장 조화롭게 이끄는 것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예요.”

전라도와 경상도의 만남인 이 부부는 문화의 차이도 크다. 최정현씨의 말에

따르면 ‘굴비와 고등어 자반의 차이’라고나 할까. 출신 지역의 차이, 남녀성별의 차이, 부부의 역할 등에서 오는 갈등도 만만치 않거니와 근본적으로는 성격 차이도 크다. 변재란씨가 사회적인 관계에서 자극받고 활기를 찾았다면 최정현씨는 집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거나 무언가를 만들면서 아이디어를 구상한다.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존중과 이해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일심동체를 강조하기보다는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지요.”

이들의 살아 있는 보물이자 영감의 원천인 딸 하예린은 벌써 초등학생이다. 배란대에 만든 하예린의 방 옆에는 포도넝쿨이 늘어져 있고 그 곁에는 최정현씨가 만든 풍향계가 바람에 팔랑거린다.

영화평론가 변재란씨가 좋아하는 감독은 대만의 후 샤오시엔, 그의 잔잔한 영화는 변재란씨의 글과 닮아 있다. 현재 변재란씨는 《한국영화사》를 집필중이다. 최정현씨는 세계여행시리즈를 위해 최근에 파푸아뉴기니 등을 다녀왔고 곧 책으로 묶을 예정이다.

— 마정미 기자

